

본 자료는  
2018년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된  
<운명> 프로그램 파일로,  
관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게시되었습니다.

프로그램북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권리는  
모두 국립극단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의 복제, 재인용을 금하며  
개인 SNS와 웹사이트에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일시  
2018년  
9월 7일(금) -  
9월 29일(토)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주최·제작  
(재)국립극단

# 운명

연백남

근현대희극의  
재발견 9

국립극단



## 줄거리

### “나는 아무리 기를 써도 지금의 고통에서 해방 될 날이 없을런지요”

이화학당 출신의 박메리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하와이에 살고 있는 양길삼의 사진만 보고 결혼한다. 중매자에 의하면 양길삼은 훌륭한 인격과 부를 지닌 사내였지만 하와이에 도착해 마주한 그는 구두 수선공에 도박과 음주를 즐기며 술주정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결혼 후 매일을 눈물로 지내던 박메리는 잠시 하와이에 들린 옛 애인 이수옥을 만나게 되고, 박메리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이웃 남자 장한구와 남편 양길삼은 둘의 만남을 알게 되는데...



공연	발간
1921.02. 갈동회(경성고학생회), 중앙기독교 청년회관	1924.12. 희곡집 '운명', 신구서림
1921.07. 갈동회, 평양 외(전국순회)	
1921.10. 예술협회(제1회 창단공연), 단성사	

## 주요 공연연보

## 작가소개

윤백남 (1888~1954)



본명 윤교중. 극작가이자 소설가, 영화감독으로 활동했던 전방위적 예술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매일신보』 기자로서 글 쓰는 일을 시작한 이래 신파극단 '문수성'과 '예성좌'를 만들어 배우 및 극작가로 참여했으며 몇 편의 잡지와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연극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윤백남은 「연극과 사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론 논문을 발표했으며, 민중극단을 조직하여 <등대지기>, <기연>, <제야의 종소리> 등 번안 및 번역극을 상연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연극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1931년에 신파극단 극예술연구회의 창립동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계몽주의, 인도주의적 경향을 가진 그의 작품들은 우리나라 초기 연극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주요작품

연극	<국경> <운명> <등대지기> <기연> <제야의 종소리> <파멸>
소설	「몽금」, 「대도전」, 「백련유전기」, 「해조곡」, 「봉화」, 「흑두건」, 「벌통」
야담	「보은단의 유래」, 「순정의 호동왕자」, 「우연의 비극」
영화(감독)	<월하의 맹서> <춘의 영웅> <운명전> <정의는 이긴다>
논문	「연극과 사회」 외 다수

## 작가연보

- 1888년 11월 7일 출생(충남 공주)
- 1901년 서울 경성학당 중학부 입학
- 1905년 와세다대학 고등예과를 거쳐 정경과 진학/조선 황실의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지원이 중단 되어 도쿄고등상업학교(현 히토쓰바시대학)로 전학
- 1910년 졸업 후 귀국해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강사 출강
- 1911년 한일강제합방조약 이후 『매일신보』 기자로 문필 생활 시작
- 1912년 작가 조중환과 함께 신파극단 '문수성'을 창단하여 번안 신파극을 공연하고 배우로도 활동
- 1913년 『매일신보』 편집국장 역임
- 1915년 잡지사 '반도문예사'를 세우고 월간잡지 '예인' 발간
- 1916년 극단 '문수성' 해체/이기에와 함께 신파극단 '예성좌'를 조직 <콜시카의 형제>, <카츄샤> 등 서양 연극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연
- 1917년 영화사 '백남프로덕션' 창립
- 1919년 『동아일보』 입사/단편소설 「안조화」, 「기연」, 「시주」, 「몽금」을 발표하고 「수호지」, 「대도전」(한국 최초의 대중소설)을 번역 및 연재/<운명>, <국경> 창작
- 1920년 『동아일보』에 신극사 최초의 연극 논문 「연극과 사회」 발표
- 1921년 이기세가 주재하는 예술협회의 제1회 창단공연으로 <운명> 상연
- 1922년 개량신파극단 '민중극단'을 조직해 자신의 희곡 「등대지기」, 「기연」, 「제야의 종소리」, 「영검의 처」, 「학무정」 등과 번안·번역극 상연
- 1923년 한국 최초 극영화 <월하의 맹서> 각본 및 감독
- 1924년 조선키네마에 입사해 영화 <운명전> 감독
- 1930년 '경성소극장' 창립동인/장편소설 「대도전」 발표
- 1931년 '극예술연구회' 창립동인/장편소설 「백련유전기」 발표
- 1932년 신극운동 참여/장편소설 「해조곡」, 「대호전」, 「항우」 발표
- 1933년 경성방송국 문예부 주임 취임/장편소설 「봉화」, 「흑두건」, 「추풍령」, 「미수」, 「소년서유기」 발표
- 1934년 월간지 『야담』 창간 후 재직 겸 발행
- 1937년 만주 화북으로 이주하면서 재만 조선농림문화향상 협회 상무이사 취임/장편소설 「사변전후」 소설이자 영화 시나리오 「머디로 가는 사람」 발표
-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 후 귀국하여 '조선영화건설본부' 본부장 겸 대표위원장으로 취임하여 뉴스와 극영화 제작을 주도
- 1950년 출판사 '백수사' 창립 및 경영/6·25전쟁이 발발하자 해군 중령 임관 및 해군 공보실장을 지냄
- 1953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초대학장 취임/ 단편소설 「낙조의 노래」, 「천추의 한」 발표
- 1954년 9월 29일 사망(서울)

# 우리가 몰랐던 하와이의 메리, 그들의 이야기

\*공연 결말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원작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빠르게 일어나고 끝나는 데다 여백이 많은 작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올려지는 작품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이미지와 대사를 추가하셨습니다. 하와이 이주 한인에 대한 이야기는 낯선 소재인데다 사건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현대의 관객이 어떻게 보여줄 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김낙형 연출가(이하 김) 잘 알려지지 않은 하와이 이주민의 이야기가 배경이다 보니 사건 위주의 원작의 흐름 그대로 가서는 작품 저변에 깔려 있는 역사나 그 속의 인물들이 관객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원작의 흐름이 굵고 강렬해서 사건이 부각되는 것에 비해 배경은 대사로 스치듯 언급만 되고 그냥 넘어가는 식이어서요. 처음에는 원작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요소들, 즉 대사 외의 안무나 영상 등으로 엮어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가지나 잠깐씩 나오는 인물들이 대중 어떤 상황을 처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어떤 역사적 저변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또 사진 신부라든가 하와이 이민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약간 추가한 것이죠. 너무 굵은 선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만 천천히 진행되도록 장을 조금 나눴을 뿐이고, 장면이 추가된 정도예요. 최대한 원작을 중심에 두었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제가 처음 원작과 이번 작품을 각각 접했을 때의 느낌이 생각나는데요. 원작이 폭주기관차처럼 빠르게 달리고 끝나버린다면 작품은 그 사이에 간여역을 만들어 생각하고 쉬어갈 여지를 만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가된 간여역을 담당하는 인물들은 원작에서는 초반에 잠깐 나오는 두 여인이었어요. 이들을 통해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진 신부가 스토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주된 것은 사랑 이야기예요. 주요 흐름이 사랑 이야기다 보니 정작 그 시대의 사진 신부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 즉 두 여인을 사진 신부로 설정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이민사회에 있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만 보면 굳이 하와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와이가 아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별성이 없지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사랑이나 결혼문제에 대해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사건이 일어나고 결말에 이르러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요. 작품에서 제시된 낯선 환경을 관객들이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결말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작품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메리와 수옥이 신파를 담당한다면 두 여인은 풍자와 해학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지요.

Q. 원작에서는 사진 결혼이라는 제도, 매매혼(賣買婚)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중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이번 작품에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이야기 등으로 배경과 문제의식을 더 풍부하게 채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의 여지는 넓어지는 동시에 집중되어 있던 사진 결혼에 대한 비판은 약간 분산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우선 작품 속 메리의 운명이 조선의 운명 같다고 생각했어요. 원치 않는 남자와 사는 것이 일본과 원치 않게 함께 가고 있는 당시 조선과도 같고, 그런 메리에게 그 사람 즉 일본과 잘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그게 어쩔 수 없는 너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내용을 추가한 것도 공연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리가 처한 현실의 벽과 그에 대한 메리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 김낙형 극단 竹竹 대표



주요작품 작 <헤미리 비게드>  
연출 <삼국유사 연극판말 무극의 삶> <농담> <생사계> <최의 화장법> <검둥이와 개들의 싸움> <인들레 바람댈이> <맥베드> <존경하는 열매나 선생님> <애쿠무스>  
연출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식식  
작/연출 <나무들> <그 여인숙> <나의 고산> <노동적 행상> <별이 쏟아진다> <이상 12월12일> <허브의 여인들> <서림아래 뽀뽀> <자상의 모든 밤들> <인들레 바람댈이> <우정-백제문화재 개관작> <붉은 맥이> 외 다수  
수상 2010 제1회 연극예술상 공연부문  
2009 카이로연극제 대상, 국립극장페스티벌 국제 우수작 <맥베드>  
2008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한국연극 베스트 7 <맥베드>  
2006 PAF 선정 희극상, 올해의 예술상, 한국연극 베스트 7 <자상의 모든 밤들>

약간은 배운 신여성이 호기심으로, 기회를 얻고 자 외국으로 갔는데, 이게 사진 결혼이죠. 그 방법 밖에는 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가난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메리처럼 서양에 대해 알고 싶어서, 약간의 동경으로 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매매혼에 대한 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메리라는 여성이 사회의 벽에 계속 부딪치며 자아를 찾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원작의 결말을 보면 명확한 개연성이 없어요. 굵게 가든 짙게 가든 우발적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덜 우발적으로, 그 안에 조금은 메리의 선택이 들어갈 수 있는지, 살인에 그런 면이 조금은 반영된 것인지를 따지고 있는 거죠. 이 작품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수옥은 개화를 상징하고, 메리는 개화와 야만의 중간, 나머지는 모두 야만으로 간주되어 결국 개화가 야만을 응징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분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대 관객에게는 권선징악 외의 다른 답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어서는 혼란 비판만 있고 삶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작품에는 역사가 있고 삶이 있거든요.

Q. 무대 배경으로 역사적 정보를 주는 이미지를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장이 마치 전시관처럼 느껴지는 것을 의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김 하와이에 이민 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연이예요. 그리고 언어고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소수 중 소수이고, 하와이의 귀퉁이 한 부분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 희곡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보여요. 먹고 살 만하니까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현실이 배경으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풍자가 되었던 신파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삶에 있어 이런 어려움, 이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Q. 이 작품이 발표된 당시 사회문제에 대한 무거운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던 측면을 현대적으로 재현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필름이나 전시회 같은 것과의 혼성 장르적 측면도 고려되고요.

김 아마 원작자인 윤백남 선생님이 현대에 살아 계셨으면 컨텍스트(사물간의 관계, 배경 등)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출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요, 하고 제시하는 거죠. 이분이 또 한국 최초의 영화감독이예요. 연극에 필름을 쓰는 것이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이 작품이 보통의 신파극 같았으면 내용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런데 이 작품은 실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실제 하와이라는 배경에, 사진 신부라는 실존했던 요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연에 잘 드러내 줄 수 있다면 직접적 설명이 아니라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덧붙이자면 작품을 보면서 스토리는 허구일지 몰라도 마치 이게 진짜 있었던 것처럼, 관객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와이의 사진 신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 사진 신부는 일제시대 때의 다른 강제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한국이 처했던 상황을 보여줘요. 메리의 운명, 그리고 메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다 한국적 상황이에요.

이번에 올리는 작품은 메리를 둘러싼 사건이 단순히 질투나 일방적으로 악한 인물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아를 찾고 싶은 한 여성이 어떻게 남편을 찌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개연성과 이유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남궁경(자유기고가)

## 출연진



**양서빈**  
박매리 역  
연극 <3월의 눈> <빛의 제국>  
<탈출, 날숨의 시간> <홍도>  
<칼로막베스> 외 다수  
수상 2014 제5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홍아론**  
이수옥 역  
연극 <1945> <남산에서 길을 잃다>  
<비행소년 KW4839>  
<로미오와 줄리엣>  
<아메리칸 환관> 외 다수



**이종무**  
양길삼 역  
연극 <그렇게 산을 넘는다>  
<바람 불어 벌이 흔들릴 때>  
<3월의 눈> <비평가>  
<일종의 알레카> 외 다수



**박경주**  
장한구 역  
연극 <두드러라 맥베스> <성>  
<한밤의 사람들> <8피우스트>  
<메스카미-고집이 배> 외 다수  
수상 2017 제7회 서울미래연극제 베스트 퍼포머상



**이수미**  
인근 여인 갑 역  
연극 <차의 감각>  
<모노드라마 헬릿릿헬>  
<순님들> <맥베스>  
<렘페스트> 외 다수  
수상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주인영**  
인근 여인 을 역  
연극 <얼굴도둑> <경남 창녕군 길곡면>  
<경숙이 경숙 아버지> <반산>  
<아기니꾸 드래곤> 외 다수  
수상 2006 제43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극상  
2006 제11회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박가령**  
송애라 역  
연극 <성> <자메이카 헬스클럽>  
<사운드 오브 뮤직>  
드라마 <천일의 약속> <국화> 외 다수

## 태평양을 격하여 사진으로 결혼, 미국에 있는 신랑 조선에 있는 신부, 사진만 보고 혼약 간간 있는 큰 낭패

마산 마동면 금남리 18세 된 계집은 그 동리 일경에는 아름다운 계집으로 칭호가 있던 터이라, 작년 겨울에 미령포와(하와이)에 있는 이모 38세 된 자로부터 사진 결혼의 소개가 있어 피차 신분을 조사한 결과 나이도 틀리지 않는 일을 알고 다만 사진의 얼굴만 보고 허락이 되어 그 사나이가 예비 200원을 보낸 고로 김성녀는 내지 외무성에 도항 면허장을 얻어가지고 지난 2월 25일 구마산을 출발하였는데, 구마산 순사파출소의 조사한 바를 듣건대 사진만 보고 결혼이 되어 포악에 건너간 자가 대정 2년에는 8명이요, 동 3년에는 6명이요, 본년에 들어서는 전기 김성녀를 합하여 3명인즉 통계가 17명의 다수에 달한다는데 이런 사진결혼하는 중매는 모두 기독교의 목사가 많이 취급을 하며 소개하는 여인은 기독교 신자라는데 처음에 데려갈 때에는 행복 있는 혼인으로 말을 하여 간 후에 계집을 교환 또는 넘기는 풍설이 있다한즉 사진결혼은 것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더라. 『매일신보』, 1915년 3월 6일



## 사진결혼을 하여도 좋을까요?

사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은 것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면 혹시 그 성격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 하는 이도 있지만은 인생의 중대 문제를 사진만으로 결정하여 버리고 만다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듯 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이가 스물여섯이 되도록 혼인을 안 하시더니 조금만 더 참으셔서 조선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친히 교제해보고 택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있는 이의 여비를 받지 말고 구경도 할 겸 당신이 가서 보시고 정하시든가 혹은 그러려 속히 나오라 하여 보고 정하시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그러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여 조선서 배우자를 더 오래 고르고 계산 수가 없고 또한 미국 있는 이의 여비를 받지 않고는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사진결혼이라도 하지 아니지 못할 형편이면 이전에 부모가 강제로 눈도 코도 보지 못하던 이에게 혼인을 하여준 셈치고 가실 수밖에 없겠지요. 『조선일보』, 독자상담코너, 1926년 8월 13일

# 희곡 「운명」 속의 몇 가지 '운명'의 의미

작가 윤백남은 1924년 발간한 자신의 희곡집 『운명』의 머리말에서 “이 운명은 나의 처녀작이었고 동시에 조선인의 작으로 조선 무대에 상연된 최초의 희곡이다.”라고 희곡 『운명』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 작품은 1920년 12월 12일 입센의 『인형의 가』와 함께 경성고학성회인 ‘갈뚝회’에서 공연되었고, 이듬해인 1921년 10월 16일 전문극단인 ‘예술협회’에 의해서 단성사에서 공연된 바 있다. 이러한 공연사를 검토해 볼 때, 작가의 단언대로 이 작품은 한국에서 공연된 최초의 창작희곡이자 대본이 전하는 최초의 전문극단의 공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조선 최초’임을 뚜렷이 자각하고 창작된 희곡의 제목을 ‘운명’이라고 감히 이름 지은 작家的 운명 의식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극중 인물이 겪는 어떤 사건이 운명적이기에 그토록 부당스러운 단어 ‘운명’이란 말을 제호로 삼았을까?

‘인간이 왜 그런지 모르는 채 받아들여야 하는 명(命)’이 곧 운명이다. 이때의 명은 목숨, 명령, 천명(天命), 이법(理法) 등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일상어에서 운명에 제일 어울리는 말은 ‘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짐을 떠맡았을 때 그 짐의 굴레를 운명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운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체념과 같은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운명이라는 말은 일상에서보다는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어.’와 같이 드라마 주인공들이나 쓸 법한 단어이다. 이 세상의 이치와 질서를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 곧 운명적인 것이어서,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운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데어나 ‘운명’이란 말을 갖다 붙이지는 않는다.

희곡 『운명』의 여주인공 ‘박메리’는 ‘메리(Mary)’라는 이름을 지닌 것에서 보듯, 부모(아마도 아버지)에 의해 원하지도 않은 서구지향적인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것이 박메리 인생의 첫 운명이 아니었을까? 1920년대 초, 이화학당을 졸업한 신여성성의 허영심 또는 진보성을 상징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가가 부여한 등장인물의 이름이 하필 서양식 이름인 메리인 것은 첫사랑의 의리를 저버리고 돈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한 여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남성 중심적인 비판 의식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박메리 자신의 선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작품 속의 두 번째 운명적 사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사진결혼’이라는 당대의 현실적 사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이 작품의 시대적 의미와 비극성이 놓인다. 사진이라는 일부의 걸모습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근대 초기 배우자 선택의 방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어이없을 수도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당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절단의 진보적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식 당일에서야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경우가 여전한 현실에서, 사진이라는 최첨단의 실제 확인 방식에 의해 미리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1920년대 초에 충분히 매력적인 확신의 선택지일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남녀의 첫 만남이 사진 교환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1920년대 사진결혼을 미개하거나 미련한 일로 비웃을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의 삶의 터전이 한국이 아닌 태평양 건너 머나먼 하와이 땅이라는 데에 있다. 1954년에 가서야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될 때까지 하와이는 1898년 이후 미국의 식민지 영토에 불과했다.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의 인력송출회사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모아 하와이로 보낸 것이 1902년부터 1905년 동안의 일로 미국의 한인 이민사의 첫 장을 이루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1920년대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 남성의 나이는 아마도 최소 30대 후반은 되었을 것이므로 아마도 극중 양길삼과 박메리의 나이차는 적어도 10년 이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쩌면 양길삼은 하와이에 도착해서 짝은 젊은 시절의 사진을 조선으로 보내고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여 자신을 소개하였을지도 모른다. 박메리는 하와이 현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그저 미국이라는 이상향에서 살 수 있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덩실 양길삼과의 결혼을 선택하였을 수도 있다. 박메리가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한 이후라는 것, 박메리는 바로 이 선택 하에서 체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삶의 운명적 성격이 배가된다.

극중에 등장하는 하와이의 한인 남성들은 1920년대 시점에서 비교적 성공한 직업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한구는 인부 감독이며 양길삼은 양화수선업자로서 초기 농장 노동자의 신분은 면한, 비교적 경제

## 양승국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및 대학원 공연예술학협동과정 교수



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메리로서는 양길삼과의 삶이 처녀 시절 꿈꾸었던 ‘인격자’와의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박메리 자신의 발화를 통해 박메리 대변되는 1920년대 ‘신여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작품이 단지 이러한 박메리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시선에만 머물렀다면 이 작품이 당대에 주목받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작가가 자신의 희곡집의 표제작으로 자신 있게 내세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작품 속의 운명적 사건은 그야말로 ‘운명처럼’ 다가온다. 바로 박메리의 결혼 전의 연인 이수옥(李秀玉)의 등장이다. 마침 이수옥이 미국 유학길에 오른 여객선이 수리를 위해 하와이에 기항함에 따라 이수옥은 미리 알아둔 주소를 들고 박메리를 찾아 나선다. 물론 여객선의 내부 사정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따지면 하와이 기항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고 하겠지만, 왜 하필 이 배에 이수옥이 타고 있었으며, 왜 그 시점에 배가 수리를 필요로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과를 따지기 힘들다. 이런 경우가 일상적인 용법으로 ‘운명’에 가깝고 드라마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연과 우연을 넘어 이 둘을 포괄하는 인과 초월적인 의미로서의 ‘운명’에 가장 가까운 사건이 이제 박메리에게 전개되는 것이다.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이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수옥은 박메리에게 결혼 생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육체를 초월한 정신의 평화를 하느님 말씀 속에서 찾으려 설교한다. 박메리와 마찬가지로 이수옥 역시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머물면서 자신의 선택을 운명으로 치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수옥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이름을 박메리에게 알려 주는 남성적 욕망을 은연중 노출시킨다. 자신들의 현실을 운명으로 치부하면서 정작 자신은 수동적 자세에 머무른 채, 더 이상의 운명의 선택은 박메리에게 떠넘기는 이수옥의 태도는 비겁하고 유치하기까지 하다. 물론 유부녀인 박메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수옥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수년 만에 먼 미국 땅에서 만난 젊은 연인들의 재회로서는 아무리 1920년대라고 하더라도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극적 반전은 박메리에 의해 일어난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던 박메리는 이수옥과의 재회를 통해 잊고 있었던 자아를 발견한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수옥을 향한다. 이 선택은 무대 밖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이 아닌, 자아 내부에서 발현된 것으로서 비록 충격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주체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욕망의 실현을 도와주는 것은 작품 속에 섬세하게 배치된 무대 장치인 열대성 강우(스콜)로써 체면과 허식을 던져버리는 두 인물의 가장 중요한 ‘운명’의 선택의 계기로 작동한다. 두 연인이 비로소 연인으로서의 욕망을 감추지 않게 되었을 때, 질투에 눈이 먼 양길삼이 손에 칼을 들고 등장하고, 다소 어색한 칼부림 끝에 박메리의 손에 의해 오히려 양길삼이 죽게 되는 사건의 전환이 일어난다. 어쩌 보면 열정적인 사랑에 의해 악인이 징치되는 것과 같은 신파극적 결말로 끝맺는 듯하다. 하지만 근대적인 법체제로 본다면, 양길삼의 죽음은 정당방위에 의한 것이어서 박메리의 살인 행위는 면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대적인 젊은이인 이수옥이 순간적으로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양길삼의 죽음마저 이수옥에게는 ‘운명’이어서 앞으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각오하겠다는 주체 확인의 자세를 표명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두 연인이 가장 큰 운명을 맞으면서 막을 내린다.

만약 이 작품이 박메리-양길삼-이수옥 간의 삼각관계의 사건으로 일관되었다면 오히려 근대적인 대중극의 가능성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제목이 담고 있는 ‘운명’의 의미는 훨씬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1920년대라는 시대 전환기에서 젊은 남녀가 외부에서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면서도, 그 운명을 수동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굴레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의 미래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박메리라는 당대 신여성성의 고민과 갈등을 주체적인 욕망의 극적 표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은 새롭게 대두된 근대적 여성성과 이를 통한 이 작품의 근대성을 잘 보여준다. 잠시 눈을 감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하와이 어느 지점에 우리 자신을 놓고 이들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 보자. 과연 우리는 이들의 선택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바로 이 어려움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된다는 점에 희곡 『운명』의 선구적 의미가 놓인다고 할 수 있다.

## 연습 스케치



TIP 01

## 하와이 이민사와 사진신부

-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한 조약) 체결 / 중국인 이민제한법 발효 후 일본인 노동자 하와이로 이주
- 1898년** 하와이 미국령(식민지)으로 편입
- 1902년** 하와이가 일본인 지원자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주한 미국 공사가 고종으로부터 한인들의 하와이 이주 정책을 허가받음/전국 각처에서 모집된 여러 교회의 교인들과 노동자 등 121명을 태운 일본여객선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최초 하와이 단체 이민을 위해 출발(12월 22일)
- 1903년** 중간 정착지인 일본 나가사키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사람을 제외하고 총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 호놀룰루 도착(1월 2일)
- 1905년** 하와이 이민 규제 실시, 이때까지 약 7,400여 명의 한인이 하와이로 이주하여 6개 섬의 30여 개 사탕수수 농장에서 근무
- 1906년** 하와이 최초의 한인기숙학교 개교(1907년 정식 사립학교 인준)
- 1908년** 미국과 일본의 관계악화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자국민 미국 이민 금지 실시(신사협약), 그러나 이미 하와이에 정착한 남자들의 결혼을 위한 입국은 허가되었기에 일본여자의 하와이 이민이 제한적으로 허용됨.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진 교환 후 결혼하는 이른바 '사진결혼' 성행
-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하여 일본의 여권을 발급받아야만했던 한인들 역시 하와이 이민이 금지되고 한인사회에서도 최초로 '사진신부'가 출국함.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당시 하와이의 한인은 4,533명으로 집계(그 밖의 한인은 미국 본토로 이주하거나 한국으로 복귀)
- 1924년** 미국의 동양인 배척령 실시(아시아인 입국 금지), 이때까지 하와이에 도착한 한국인 사진신부는 약 700명
- 1954년**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격
- 1968년** 미국의 아시아인 이민이 재개되어 9명의 한인 입국
- 2017년** 현재 하와이에 거주중인 재외교민은 약 66,000명(유학생 및 외국 시민권자 포함)

TIP 02

## 작품 속 단어

- 반공일** | 오전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토요일'을 이르던 말
- 공전** |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품삯
- 공일** |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
- 전유어** | 얇게 저민 고기나 생선 따위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푼 것을 섞워 기름에 지진 음식
- 협수룩하다** | 어지럽고 허름하다.
- 파나마환** | 파나마(남북아메리카를 잇는 파나마 지협에 있는 나라) 배
- 빙표** | 여행 허가증
- 승천입지** |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자취를 감추고 없어짐을 이르는 말
- 노경** | 늙어서 나이가 많은 때, 또는 그때 즈음
- 서간** | 편지
- 여행권** | 여권
- 망설거리다** | 망설거리다(이리저리 생각만자꾸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다)의 방언
- 횡빈(橫濱)** | 요코하마(일본 간토(關東)에 있는 국제 항만 도시)
- 안동하다** |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거나 물건을 지니고 가다.
- 등걸** | 줄기를 잘라 낸 나무의 밑동
- 지계문** | 옛날식 가옥에서, 마루와 방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
- 춘양환** | 동양기선회사의 22,000톤 대형여객선
- 구류하다** | 오랫동안 머무르다.
- 돈하다** | 매우 단단하고 세다.
- 오리정** | 오리(里)마다 만들어 놓던 이정표
- 텃석부리** | 텃석나룻(좁고 더부룩하게 많이 난 수염)이 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제독주다** | 상대편의 기운을 꺾어서 감히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다.
- 상치되다** |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치게 되다.
- 오보** | 뉘우쳐 한탄하고 반뇌함
- 감화** |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함, 또는 그렇게 변하게 함.
- 강청하다** |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다.
- 외장치다** | 어떠한 판을 혼자서 휩쓸다.
- 전유하다** | 혼자 독차지하여 가지다.

## 만드는 사람들

<b>출연</b>	<b>무대제작</b>	<b>타프무대예술</b>	<b>기획·제작 총괄</b>	<b>지민주</b>
인근 여인 갑 이수미	의상제작 의상제작	버즈핏	프로듀서	심소연
양갈삼 이종무	소품제작	폼스	제작진행	이은지
인근 여인 을 주인영	소품팀	금속공예		
박매리 양서빈		이성식 이주윤 임지옥	<b>주최</b>	(재)국립극단
장한구 박경주		제작	<b>예술감독</b>	이상열
이수옥 홍아론		김연경 이종순 이주연	<b>사무국장</b>	오현실
송애라 박가령		최소리		
	<b>조명팀</b>	여국군 천세현 박성민		
<b>스태프</b>		이상민 이지은 박지은		
<b>작</b> 윤백남		김요한 이상민2		
<b>연출</b> 김낙형	<b>음향팀</b>	김현욱		
	<b>영상팀</b>	김용하		
<b>무대</b> 손호성	<b>영상장비협력</b>	미디어 공장		
<b>조명</b> 주성근		Media Factory		
<b>의상</b> 이명아	<b>홍보마케팅 총괄</b>	정용성		
<b>음악</b> 김동욱	<b>홍보</b>	오지수 이정민		
<b>영상</b> 신성환	<b>마케팅</b>	김태은 박보영		
<b>안무</b> 금배섭		한나래 최윤영		
<b>분장</b> 김근영		이다영 김효진		
<b>소품</b> 박현이	<b>그래픽디자인</b>	써니 아일랜드		
<b>음향</b> 유옥선	<b>응용디자인</b>	스튜디오 붐빔		
	<b>하이라이트영상</b>	오슬로 프로젝트		
<b>안무 트레이너</b> 배민우	<b>옥외광고</b>	킨비즈커뮤니케이션		
<b>조연출</b> 최봉문	<b>홍보물인쇄</b>	어뮤즈랩		
<b>근현대극 자문위원</b>	<b>홍보연습공연사진</b>	SUPA GROUND		
양승국 이상우 김명화 김옥란 김남석	<b>기록영상</b>	미니멀랩 프로젝트		
	<b>프로그램디자인</b>	스튜디오 붐빔		
	<b>프로그램인쇄</b>	삼조인쇄		
<b>무대기술 총괄</b> 신용수	<b>티켓</b>	김보전 이현아 김보배		
<b>기술감독</b> 김무석		이승이 김보연		
<b>무대감독</b> 김승철	<b>매표안내원</b>	김인혜 허수련 이준원		
<b>무대제작감독</b> 최슬기		이은지 김다애		
<b>조명감독</b> 김용주	<b>하우스매니저</b>	김나래 소여진		
<b>음향감독</b> 최환석	<b>하우스안내원</b>	이시라 권묘정 전준형		
<b>의상감독</b> 박지수		김성주 김진은 박만수		
<b>조명오퍼레이터</b> 김지우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b>음향오퍼레이터</b> 박상준				
<b>영상오퍼레이터</b> 정혜지				
<b>무대진행</b> 한동찬 김학준				
<b>의상진행</b> 전요나				
<b>분장진행</b> 안소연				

\*본 공연에 사용되는 정영욱 님의 인터뷰 영상은 '특집다큐-하와이 사진신부'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 재단법인 국립극단

<b>(재)국립극단 이사회</b>	<b>무대기술팀</b>
김상현 이사장·네이버(주) 경영고문   이성열 이사·(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성규 감사·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고희경 이사·홍익대학교 교수   이상우 이사·고려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성일 이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용수 팀장   김무석 기술감독   김승철 신승호 무대감독   최환석 음향인 이병석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최슬기 흥연전 무대제작감독   임채호 무대기계   박지수 무대의상   김민주 윤성희 주원국 김태진 김민정 나누리 연수단원
<b>예술감독</b>	<b>경영관리팀</b>
이상열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정병욱 시설·안전관리   박예원 정보화·교육   최태영 경영기획·인사   김사내 예술감독 비서
<b>사무국장</b>	<b>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b>
오현실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안이현 청년인턴   권은지 연수단원
<b>작품개발실</b>	<b>2018 시즌단원</b>
정영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김소연 청년인턴	이수미 정원조 최지훈 이종무 김한 주인영 정지아 양서빈 이원희 김수아 박경주 정세훈 홍아론 임준식 이호철 강해진 박기영 조남용
<b>공연기획팀</b>	<b>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b>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심소연 박성호 정채영 프로듀서   김소현 이아를 청년인턴	<b>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b>
<b>홍보마케팅팀</b>	
정용성 팀장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다영 김효진 마케팅   오지수 이정민 홍보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이승이 김보연 고객지원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소여진 청년인턴	

백성희장민호극장 차기공연  
청소년극  
**오렌지 북극곰**  
이 시대 10대들을 위한  
오디세이의 총착지!  
10.11.-10.21.  
작 고순덕/애반 플레이시  
연출 피터 윈 윌슨  
\*9월 중 티켓오른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  
**보고 싶은 연극을  
누구보다 저렴하게!**  
.....  
유료회원 가입문의  
www.ntck.or.kr  
1644-2003